

모자이크 · 마일리지 장학 통합해 '융합인재장학' 신설 전공별 역량 지원하는 '단과대학 특성화 항목' 더해져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서울캠 '모자이크'·국제캠 '마일리지' 장학이 폐지되고 이를 통합한 '융합인재장학'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모든 계열의 학생에게 일괄 적용되던 토익 성적 등의 기준만 있었지만, 각 전공 특성에 맞는 항목이 함께 도입되면서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융합인재장학은 오는 6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번 개편은 이원화 형태로 운영되던 장학제도를 일원화해 학생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수혜가능한 역량강화 장학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학팀은 "학생 만족도 조사와 총학생회 주도의 설문 결과를 적극 수렴한 결과"라며 "소득분위라는 경제적 잣대를 넘어 누구나 노력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장학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융합인재장학은 기존 모자이크·마일리지 장학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 학업·국제화·개인·사회보

사 4대 역량을 중심으로 자격증·어학능력 취득, 공모전 수상 등 학생들의 자기개발 노력 및 활동 실적을 반영하는 등 기존 장학의 핵심 인정 항목들을 유지했다.

이에 더해 새로운 체계에서는 전공별 맞춤 역량인 '단과대학 특성화 항목'이 더해진다. 해당 항목은 각 단과대학의 학문적 특성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설정한 것으로, 단과대학별 취업 및 사회 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량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평가한다. 일례로 호텔관광대학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학부생 연구 프로젝트 수료 등을 인정 항목으로 설정했다. 장학팀은 "단과대별로 취업이나 사회 진출에 꼭 필요한 역량을 쌓았을 때 좀 더 직접적인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수혜 금액은 상향된다. 국제화 역량과 기타 역량 등 일부 항목의 지원금액은 1등급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2등급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수혜 금액 인상 배경에 대해 장학팀

기존 장학		개편 후
모자이크장학 (서울캠)	마일리지장학 (국제캠)	융합인재장학
성취 달성 학기에 신청 및 지급	마일리지 적립 후 재학 중 2회 지급	성취 달성학기에 신청 및 지급
재학 중 취득 실적만 인정	재적(재학+휴학) 중 취득 실적 인정	재학 중 취득 실적만 인정
학업역량, 진로역량, 국제화역량, 기타역량, 사회진출역량	학업역량, 국제화역량, 개인역량, 교육역량, 사회진출역량	공통항목: 공인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등 단과대학 특성화 항목: 특정 전공 관련 전문 자격증, 연구프로젝트 등

모자이크·마일리지 장학을 폐지하고, 단과대별 특성화 항목과 보상을 강화한 '융합인재장학'을 통합 신설한다.

은 "실제 자격 시험 응시료와 교재비 등 학생들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보상 체계 또한 변화한다. 기존 마일리지 장학은 재학 중 단 2회만 인출할 수 있었으나, 융합인재장학은 성취를 달성한 해당 학기에 즉시 신청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적

기 보상' 구조로 운영된다. 다만 휴학 중 취득한 성취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우리학교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학생의 성취와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장학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학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

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장학 혁신을 펼치겠다"며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성적 장학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장학금 신청 기간을 놓쳐 수혜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일 예정"이라 밝혔다.

통합형 수능 앞두고 입학전형 개편...정시 줄고 학생부 반영 늘어 '네오' 전형 면접 · 서류형 분리, 자연계 수학 · 과학 가산점

서리수 기자 sooxoosoo@khu.ac.kr

2028학년도 입학전형계획에 변화가 생긴다. 주요 변경 사항은 ▲정시 모집인원 감소 ▲네오르네상스 면접형 · 서류형 분리 운영 ▲정시 일부 전형에 학생부 반영 ▲자연계열 수학과학 교과 이수 학점 가산점 신설 ▲지역균형전형 지원자격 축소 ▲사회계 논술 수리 문항 조정 등이다. 이는 전체 학생이 동일하게 모든 과목을 응시하는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 도입을 고려한 변화다.

우선 정시 모집인원이 소폭 줄었다. 전체 모집인원의 55.6%(3,007명)를 수시로, 44.4%(2,404명)를 정시로 선발한다. 이는 2027학년도 수시 55.3%(3,006명), 정시 44.7% (2,427

명)보다 정시 비중이 소폭 줄어든 수치다. 입학처는 "통합형 수능 도입에 따라 계열별 특성에 맞는 선발에 어려움이 있어 정시 모집인원을 축소했다"며 "정시 입학생 중 입학 후 중도 포기자가 많은 점도 일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류 평가 후 면접을 치르는 단계별 전형으로 운영하던 학생부종합전형인 네오르네상스전형은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분리된다. 면접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면접 배수를 확대한다.

학업 역량뿐 아니라 전공 적합성 및 인성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함이다. 서류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서류 100%로 선발한다. 최저학력기준은 인문·자연, 자율·자유전공학부는 2개 영역 등

급 합 5 이내이며, 의·약학계열은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다.

수능 100%를 반영하던 정시 모집 역시 수능형과 수능 · 학생부형으로 이원화된다. 수능형은 수능 100%, 수능 · 학생부형은 수능 90%에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10%를 반영한다. 특히 자연계열 수능 · 학생부형에서는 학생부의 수학 및 과학 이수 학점 혹은 과목 수에 따라 최대 8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대해 입학처는 "통합형 수능 도입으로 단일 시험 성적만으로는 수험생의 학업 성취도와 학교 교육 참여도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에서 제외된 수학과 과학 심화과목을 학생부로 평가해 자연계열 지원자의 전공 기초 과목 이수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전형은 지원 자격을 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로 한정해 현역 수험생만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는 고등학교 내신 체계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 체계를 가진 N수생과 졸업예정자 간의 성적 산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입학처는 향후 고교 전 과정 5등급제 적용 졸업자가 배출되는 2029학년도부터는 지원 자격을 다시 확대할 계획이다.

논술우수자전형에서 3문항 중 1문항이 수리 논술이었던 사회계열 논술은 이를 폐지하고 문항 수를 2개로 줄였다. 수능 체제 변화에 따른 학습 부담을 줄이고 인문 · 사회계열의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사회계 논술은 인문 · 체

육계와 동일한 통합교과형으로 출제되며,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및 분석하는 능력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된다. 다만 특정 현상을 보여주는 도표, 통계자료 등이 제시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1호(서면사과) 이상인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입학처는 이번 전형 개편에 대해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은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와 학업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를 지향하는 데서 출발했다"며 "통합형 수능 도입과 내신 체계 변화 등 급변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도 유불리를 최소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고민을 담았다"고 밝혔다.